



# 용산, 역사에 기록된 획

용산역사박물관 — 글 천정호 사진 김민정

##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풍

서울 신용산역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붉은 벽돌의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다. 바로 용산역사박물관이다. 일제강점기 서양식 근대건축미가 도드라진, 복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건물이다. 무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건축물은 최신식 아파트가 둘러싸인 용산 시가지 한가운데 있다. 눈길을 사로잡는 그 모습이 마치 이곳의 100년 주인이라고 고고하게 말하는 듯하다. 긴 시간을 지닌 이 건물은 과거 '용산철도병원'으로 철도 종사원과 그 가족 및 철도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었다. 광복 이후에는 '서울철도병원'으로 개명되어 역할을 하다가 옛것의 가치가 인정되어 2008년, 등록문화제 제428호로 지정됐다. 그리고 2022년, 최대한 외관을 훼손하지 않고 용산의 도시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 재탄생한 현재가 용산역사박물관이다.



### 흔적을 보존해 박물관으로

용산역사박물관은 도시의 역사 흔적을 보존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탄생했다. 비록 일제강점기 때 건립된 곳이라는 정통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아픔의 역사 또한 하나의 유물로서 후대에 남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져, 근대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용산역사박물관 1층과 2층은 전시실로, 3층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쾌적한 옥상정원으로 꾸며졌다. 이곳 전시실을 관람하다 보면 용산을 단순히 도심의 한 지역사라고 치부하기엔 역사성이 깊고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양의 길목에서부터 시작된 역사가 철도의 중심지가 될 때까지, 그 흔적들을 잊지 않고 남겨 놓았다.

- ❶ 용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비디오아트
- ❷ 용산역사박물관의 외관
- ❸ 비디오 속 60년대의 용산

### 파편화된 기억을 한데 모아

1층 테마는 용산으로 '모이다', '흩어지다', '이어지다', '하나되다'로 역사적 의미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역사의 자취를 걸으며 용산이 겪은 풍파, 아픔, 그리고 희망을 조명하는 구성이 돋보였다. '모이다' 섹션에서는 조선시대 한양의 길목이었던 용산에 대해 설명한다. 대외 교역이 이루어진 시장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의 밀랍인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흩어지다'의 방으로 들어가면 군사기지화된 용산의 모습을 그린다. 강제로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의 아픔, 전쟁의 상흔을 돌이켜 보며 아픔 또한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임을 상기시킨다. '이어지다'에서는 철도를 중심으로 용산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철도의 중심으로서 당시 병원을 재현하고 있는데 실제 병원으로 사용됐을 때의 일부 시설이나 장식 등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 2층의 기획 전시실로 가면 '하나되다'로 전시의 클라이맥스에 닿는다.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터전, 용산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는 용산의 현재상을 조명한다. 용산역사박물관은 용산 구민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용산의 역사 이상으로 대한민국 현대사가 궁금하다면 용산역사박물관을 방문해 보도록 하자. 용산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다. 🍷

- ❶ 1층 전시관 내부
- ❷ 과거 철도의 중심지 용산
- ❸ 용산역사박물관 조감도

